

고대 이스라엘의 통일과 분단으로 본 한반도 분단과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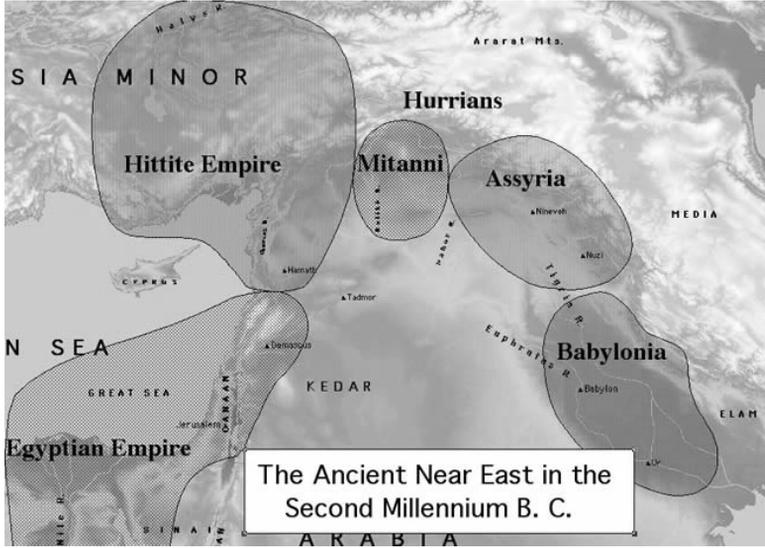
김은규*

I. 들어가는 말

고대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북쪽에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히타이트, 앓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로 이어짐)과 남쪽에는 이집트 제국이 포진하고 있어, 팔레스틴 지역은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여 있어 항상 침략의 위협과 조공, 그리고 전쟁과 포로를 겪으며 생존했다. 더욱이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은 광막한 사막이 펼쳐져 있어, 한반도가 중·러·일 제국들로부터 침략과 전쟁들을 숭하게 겪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지정학적 환경에 놓인

* 성공회대학교 구약학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구약 속의 종교권력』(서울: 동연, 2013)의 3장과 12장에 의존했음을 밝힌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국들과 이집트 제국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것과 거의 똑같다고 하겠다.

구약성서에서 분단국가의 통일을 찾을 때, 대부분 에스겔서의 두 막대기에 대한 언급을 인용한다(에스겔 37:15-28). 에스겔은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유다와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는 에브라의 막대기로, 요셉과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키면, 그것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15-17 절)을 상징적으로 말한다. 722년 북이스라엘은 앗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했고, 그 뒤 587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다. 에스겔은 나라가 없는 처지에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로 볼 때, 나라가 멸망당한 후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을 주장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에스겔은 국가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국가가 두 국가로 분열되었기에 이 같은 재난을

겪게 되었다고 보았다. 비록 국가는 없어지고, 이스라엘에 남은 백성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현실로 보면서, 이 같은 멸망의 원인을 하나는 분열로 보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더럽혀진 사회질서(23절)로 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동시에 에스겔은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자기위안을 삼지 않고, 비록 나라가 일찍이 두 동강이 났었고, 사회가 부패했었지만, 다시금 희망을 갖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포로가 되어 여러 민족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21-22절).

연구자는 통일운동을 언급할 때 에스겔의 두 막대기 논리는 인정하면서도, ‘표면적으로만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스라엘의 통일과 분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족국가 때부터 분열의 기원을 가졌고, 출애굽 시기부터 주변 제국들에 대한 반제국 사상이 구약성서 전반에 걸쳐 전개되었음을 볼 것이다.

예언자들은 국가 내부의 사회정의와 국제적으로는 반제국 운동을 펼치면서, 마치 마차의 수레바퀴와 같이 한 궤적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보면서, 분단과 통일의 원인과 기원을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시각을 돌려 한반도의 통일 문제도 분단의 원인들과 통일을 살펴보면서 연결시키려고 한다.

II. 통일의 기원: 사울의 추락과 다윗의 이미지 부각

고대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 이야기는 모세로부터 시작되는데, 일단의 무리가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나와 팔레스타인 중부지역에 이주해 들어간 것으로 본다.¹⁾ 기원전 1200여 년 경 팔레스타인 중부에 정착을 하고 그 수가 늘어나면서 열두 부족(지파)을 이루고, 이들의 세력이 상당히 올라갔을 때,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들이나, 남쪽의 이집트 제국,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인접 국가들이 왕정체제를 이루고 있음에, 이 백여 년 동안 부족국가로서 주변국들의 전쟁의 위협 등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고, 부족들을 연합해 내기 시작했다. 바로 베나민 지파 출신의 사울왕은 열두 개의 지파 중 열한 개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을 만난다.

사울—다윗—솔로몬 이야기는 사무엘상 9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총 56장에 이르는 매우 긴 분량이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세기 전체가 50장에 이르는 것을 비교한다면, 이 세 인물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볼 수 있겠다.

여기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미 기원전 587년 유다가 멸망한 시기에 신명기 역사가가 멸망의 원인을 하느님에 대한 충성과 불충성이 라는 틀로 서술했던 작품으로, 다윗왕조가 끝난 시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²⁾ 이 두 권의 책들이 부족시대(기원전 1200년경)와 초기 이스라엘

1) Anthony, R. Ceresco.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Maryknoll: Orbis Books, 2001, 『구약입문』, 김은규, 성찬성 옮김, 서울: 바오로딸출판사, 2008. 165. 마르틴 노트(Martin Noth)는 구약 본문을 면밀하게 고찰한 결과 정복이라는 형식을 강력하게 부정했다. 그는 다른 방향과 시기에 가나안으로 들어온 다양한 집단이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정착한다는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기원을 기술한다.

왕정(1000년),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922년)를 거쳐,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때(587년)까지 육백 여년의 역사를 특별히 남유다의 시각으로 아훼 신앙에 비추어 신실했는지, 못했는지의 관점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도 남유다의 다윗이 우월적인 모습이 부각되고, 패장인 북이스라엘의 사울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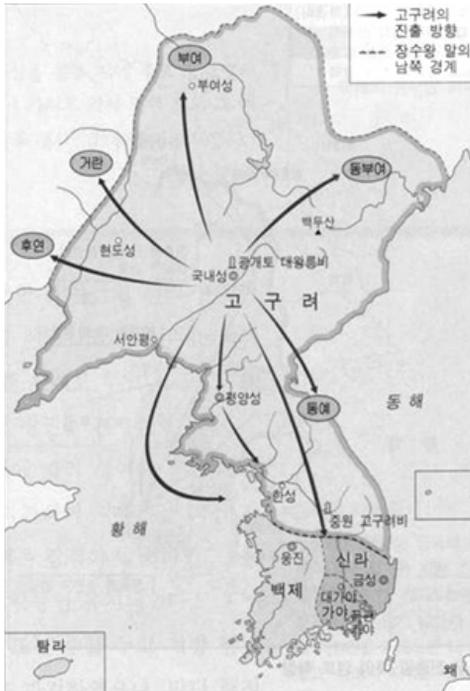
1.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일했더라면

필자는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을 기초하면서도, 다윗보다는 사울의 입장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역사에서 가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문제의 원인과 기원을 보게 되고, 그 해결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시작하고자 한다. 특히 구약성서의 초기역사에서 이미 다윗왕조가 통일왕국을 이루며 주류로 남유다를 지켜내려 왔지만, 초기에 열한 개의 지파를 장악한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일했더라면, 그가 사후에도 국가적 분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통일은 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사후에 사울 시대의 열개 지파는 도로 북이스라엘 국가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국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
- 2) 김은규, “신명기 사가의 연구 동향,” 『신학사상』 10(1997); 오택현, “신명기 역사에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 종교,” 『구약논단』 12(2002/5), pp.9-26; 박신배, “신명기 역사서의 제의개혁과 신학,” 『구약논단』 19(2005); E. W. Nicholson, 『신명기와 전승』, 장영일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김영진, “신명기 사가의 역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8(2005).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의 사울—다윗—솔로몬 시대를 보면, 주변 국가들과 군사적 충돌이 많았다(사무엘상 4장-6장; 11:1-11; 14:47-48). 기원전 11세기 후반 사울은 블레셋과 그들의 동맹군들을 몰아내며 그 위상을 높였다. 사울은 이미 북쪽의 열한 개 지파(유다 지파 아래에 있는 시므온 지파도 사울에 포섭)를 장악한 수장이었다. 사울은 에브라임 지파의 장자 지파로서 지파 동맹체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치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남쪽의 전라도이든 경상도이든 *꼬트머리*의 한 지방 출신의 왕이 평안도 이남까지 모두 통일시켰을 때,



고구려 전성기의 세력 판도

고구려의 왕은 실패한 권력이 되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겠다. 우리 국민이라면, '만약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가정을 국사 시간에 여러 번 해보았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고대부터 우리의 국토가 만주지역까지도 뻗어나갔을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라가 통일함으로써 대동강 북쪽의 땅은 포

기하고, 그 이하만 차지함으로써, 북쪽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은 상실했다. ‘만약 신라가 그때 도읍을 경주에서 한강 이남인 수원 정도로만 옮겼어도 북쪽 영토를 압록강 정도까지도 장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다. 하지만 통일신라는 여전히 남쪽 끝인 경주를 고집함으로써 고구려 영토였던 만주지역을 포기하고 쉽게 내준 것이다. 똑같이 이미 열한 개 부족을 장악한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켜 성공한 권력자가 되었다면, 국가의 분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이미지도 부정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연한 사건 하나가 사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이 용맹한 장군이었음에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적들은 다가오고, 내부에서 군인들은 이탈하는 상황에서 사울은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렸다. 하지만 곧 도착한 사무엘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에 월권행위를 했다며 용서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선포한다. “여호와와 그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사무엘상 16:14). 사울로부터 주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마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많고, 다윗을 왕권 경쟁자로 보고, 그를 시기하고 집요하게 죽일 음모만 꾸미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진다.³⁾ 사울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남유다 중심의 신명기 역사가의 일방적(?)인 묘사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왕권 리더십은 추락하고, 반대로 다윗의 이미지는 부각되고, 구약의 역사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3) David M. Gunn, *The Fate of King Saul*(Sheffield: JSOT Press, 1980).

2. 다윗의 통일왕국 리더십 이미지의 부각

사울이 북쪽 지파들을 모두 장악하고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아직 사울이 장악하지 못한 유다 지파의 한 어린 꼬마 다윗이 팔레스타인 해변가에 자리잡고 호시탐탐 내륙으로 진출하여 괴롭히는 블레셋과 전투할 때,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사무엘상 17장)이 생긴 이후, 사울의 군사적 카리스마에 도전하는 전환점을 만든다. 백성들은 곧바로 적을 죽인 숫자에 대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사무엘상 18:7). 어린 다윗은 자기가 아직 사울의 수하에 들어가지 않은 유다 지파 출신이어서, 사울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청년으로 성장한 다윗은 유다 남쪽과 동쪽의 광야 지역으로 이동하여, 휘하에 용병부대의 무법자들을 모아 자신의 세력을 키워 나갔다. 청년 다윗은 사울을 섬기며 야망을 키웠고, 적장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까지 성공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분을 두텁게 하면서, 요나단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었다. 다윗은 사울 집안과 애증이 교차하며 권력 핵심에 한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갔고, 남쪽 출신으로서 사울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사위까지 되는 권력을 향한 집념을 본다. 이것이 젊은 시절 다윗의 모습이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 번이나 결정적으로 살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인내심 있고, 아량이 넓은 자임을 강조한다. 다윗은 세 차례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줌으로써 용맹스럽고 인자한 지도자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 당시만 해도 다윗은 남쪽의 유다 한 지파만을 배경으로 한 수장이었다.

마지막 절정은 사울 군대 소속의 아말렉 출신 병사가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결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다윗은 슬퍼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했다’(사무엘하 1:11)고 묘사한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는 이 모습은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북쪽의 열한 지파의 권력을 얻는다. 사울의 죽음(사무엘하 1:1-16)과 다윗의 감동적인 비가(悲歌, 17-27절)를 대비시키면서 극적인 효과를 의도한다. 이는 다윗이 사울에 대한 애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슬퍼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제스처가 될 수도 있는 장면이다.⁴⁾ 폴진(Robert Polzin)은 이 두 장면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설득하는 말’(internally persuasive speech)로 다윗의 이중성을 볼 수 있다고 한다.⁵⁾ 사울의 신하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평소 생각하는 의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좋은 소식으로 보고한 것이고, 다윗은 속으로는 좋아 죽을 정도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표정을 지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폴진은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의 이중적 모습이 지배이념 차원이라고 한다.”⁶⁾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애통해하는 짧은 한 장면이 죽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고(1장 19절과 25절에서 두 번), 동시에 다윗 자신은 사울을 동굴과 진지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다윗의 관대함이 일관되

4) 김은규, 『구약 속의 종교권력』(서울: 동연, 2013), 125.

5) Robert 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Indianapolis :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2.

6) 같은 책, 4.

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그럼으로써 다윗은 더 이상 사울로부터 권력을 쟁취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는 북쪽 열한 개 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신명기 사가는 사울은 부정적 인물로, 다윗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3. 북이스라엘 사울계 군사령관들의 복종 서약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룬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사울이 장악한 열한 개 지파의 군사령관들로부터 충성과 복종 서약을 받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남쪽 유다의 한 지파의 수장인 다윗은 통일 후 기반이 약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복종 서약을 받은 것이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복종 선언을 했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사무엘하 5장). 이것은 남유다보다는 다수인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왕을 지지했다고 유도하는 문학적 표현이다. 다윗과 부하들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평정시켜, 충성하게 하고, 마침내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사무엘하 2-4장).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화학적 결합에 지나지 않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만 지속된 후 남북으로 분열된 것을 보면, 옛 사울의 북이스라엘 지배력이 오래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역대기 사가는 사울이 장악했던 북쪽 지파들에 대해 더 크게 의식한다.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들과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함으로써 정치적, 군사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 역대기 사가는 열두 부족들 가운데,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들을 소개하는데 베냐민 지파를 제일 먼저 거론한다(역대

기12장).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와 가장 치열하게 왕권 다툼을 벌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군사 수장인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이다.⁷⁾ 즉 사울의 연고지에서도 다윗을 지지했다는 것을 알리고 확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역대기 사기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이 사울에 쫓겨 곤경에 처했을 때도, 자신을 도와준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함으로써 우군을 확보했다(역대상 12:1-7). 사울의 부하들 삼십 명(각 지파들의 대표들과 사령관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충성을 선언하는 장면을 본다. 이때 베냐민 지파 용사들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말한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느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에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역대상 12:18)

역대기 사기는 1장부터 족보 위주로 다루어 많은 이름들과 지파들을 열거하다가, 이례적으로 충성 서약을 밝힌다. 이것은 역대기 사가가 다윗왕 중심으로 역사가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충성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반대했던 지파들을 끌어안으려는 전략적 서술 대목이다. 역대기 사기는 마지막으로 열두 지파의 용사들이,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이, 다윗을 지지한다는 목록을 열거함으로써 열두 지파를 통합시키고

7) 김은규, 『구약 속의 종교권력』, 130.

평정했음을 밝힌다.

이처럼 두 역사가의 기록은 비록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졌지만, 공통적으로 다윗이 왕권을 갖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쪽 지파들의 입장이 다른 만큼, 그들이 충성 서약하는 장면을 부각시키고, 다윗은 그들을 포용하여 자신의 부하로 삼는 내용들을 알리는 전략을 역사서의 편집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것은 성공권 권력이 역사를 서술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경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서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4. 군사적 통합과 전쟁 지배이념

신명기 사가는 다윗이 왕이 된 후 달라진 모습으로, 전쟁할 때 하느님과 의논하여 전략과 전술을 짜서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사무엘하 5:19, 23).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느님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주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구절을 통해, 다윗이 하느님께 신실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하느님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전쟁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느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거룩한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한 군사적 지배이념이다.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예언자가 다윗왕조의 영속성에 대한 선포를 하고(5-16절), 다윗이 이에 대한 감사기도를 올린 후(18-29절), 8장에서 다윗은 곧바로 모압,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에돔 등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모습을 전한다. 전쟁 승리 후에는 다윗 행정관료 명단을 발표하는데, 요압이 군사령관이라는 것을 다른 관료들보다 제일 먼저 알린다. 행정관료 명단의 순서 역시 권력의 서열을 말하는데, 군사령관이 1위이다(8:16-18). 그리고 다시 요압 장군이 암몬과 시리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을 전한다(10장). 이로써 다윗이 왕이 된 후 군사적 승리를 거둔 내용을 전하는 데 대부분 할애하고 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주요 주제는 다윗과 사울 사이의 권력 다툼, 그리고 다윗의 왕의 등극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는 것으로서 사울과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은 외부로는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내부로는 둘 사이에 경쟁을 통해 다윗이 마침내 왕권을 획득하고, 열두 지파들을 통일시켜 약소국가를 극복하고 강대국이 되었음을 알린다.

사무엘상·하 책들은 단적으로 말하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느님이 어떤 역할과 개입을 했고, 다윗은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전쟁에서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군사적인 책이다. 다시 말해, 부족 시대에서 초기 왕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인물들의 훌륭한 신앙을 배우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확신을 갖고 처신하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지를 직·간접으로 보여주는 전쟁이념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전쟁이념에 가장 큰 공로자는 역시 야웨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함께하는 전쟁인 것이다. 그리고 다윗왕이 적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포로로 잡고, 조공을 바치는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절대 권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다윗의 왕정 신학 이데올로기는 단지, 나단이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선포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선포 이후부터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서 파죽지세로 승리했다는 전쟁이념과 군사적 권력을 알림으로써 사울 계열의 북쪽 지파들의 반발과 도전을 막는 것을 연계시키고 있다. 군사 지배이념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정학적으로 사면초가로 둘러싸여 있고, 약소국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 참여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데 기여했다.

5. 지리적 통합과 지배이념: 예루살렘 신도시 건설

다윗이 첫째로 한 일은, 지리적 통합이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 넓고, 사울을 지지하던 토착세력들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속한 남쪽의 유다 한 지파만으로는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기에는 지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다윗은 그 경계 지역인 유다의 북쪽과 북이스라엘의 남쪽이 접촉하는 중간지대인 시온(예루살렘)을 신도시로 하여 수도로 삼았다. 다윗은 이 초라한 시골의 마을을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키웠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작전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동이었다. 제3의 장소에 수도를 세우는 시도는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넘어 자신이 장악하는 왕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로 보아서는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의 사울계 열한 개 지파들로 보아서는 훨씬 남쪽으로 내려오게 함으로써, 이들의 기세를 약화시키는 경계로 세웠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왕국의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이 북쪽과 남쪽의 정치적, 군사적 힘의 균형을 맞추었다.

다윗은 북쪽 지파들을 의식해서 유다의 북쪽이며, 북쪽 지파의

베냐민 지파 접경인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세웠다.⁸⁾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와 가깝고,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해서도 장악할 수 있는 사정권 안에 있는 위치였던 것이다. 만약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였던, 훨씬 북쪽의 세겜이나 실로로 했다면, 아마 다윗왕권은 오래 못 버티었을 것이다. 솔로몬이 죽은 후 두 나라로 분열된 것, 북쪽에서 잦은 쿠데타가 일어나 3개월, 6개월 혹은 3년 만에 왕들이 교체된 것만 보아도, 항상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윗과 솔로몬의 상속자들(다윗 가문)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계속했다. 남부 부족 가운데 으뜸인 유다 부족에서 이름을 딴 남왕국은 다윗이 새로 건설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중심축을 삼았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통해 정치와 종교적 구심력을 만들어 나간 것을 시온이즘(Zionism,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시온산, 곧 고향을 상징하는 의미로 시편 137:1-6에서 언급된다)이라 한다.

다윗은 다윗 도성에 왕궁을 세우고, 또 다른 중요한 계획으로 예루살렘에 종교—국가 전통들을 집중시켰다.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중앙 위치를 세우고, 통일 왕국의 새로운 정치적 심장을 세우는 고도의 정치적 실행이었다. 백성들은 새로운 통일 왕조 하에서 규율과 규칙들을 지켜야 했다. 여기서 아웨의 이중 선택, 곧 시온과 다윗 가문이라는 교리와 이념이 만들어졌다.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일 국가를 이루며, 약소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의 기틀을 세운 왕이 되었다.

8) Tomoo Ishida, *The Royal Dynasties in Ancient Israel*, p.118.

Ⅲ. 불안한 동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등과 분열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죽자마자 국가가 둘로 갈라진 직접적인 원인은 북쪽 지파들이 남유다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한 개 지파를 장악했던 사울이 통일시켜 후대에 계승시켜 나갔다면, 두 국가로 갈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국력도 더 오래도록 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윗—솔로몬의 첫 통일국가가 솔로몬 사후에 두 국가로 분열되었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칭하고, 누구든지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던 반면, 남쪽은 유다로 칭하며 왕정세습으로 이어졌다.

유다 지파는 실질적으로 세력이 가장 강한 지파였다. 사사시대에 두 지파간의 갈등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세력다툼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통일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두 세력의 갈등은 '신학적 이념의 차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유다 지파는 다윗왕조의 영속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왕조신학'에 동조한 데 반하여, 에브라임 지파는 '반 왕조신학'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윗 가문의 영속적인 통치에 찬성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사사시대로부터 자신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카리스마적 지도 이상'에 반대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반 왕조신학'을 발전시켰다. 에브라임은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등에 깊이 관여하면서, 다윗 가문과 유다 지파에 대립하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북 지파들은 솔로몬의 성전신학에도 반대하는 '반 성전신학'을 보였다. 그것은 솔로몬의 왕정의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울왕 시절의 북이스라엘의 열한 개 지파와 다윗의 유다 지파와는 통일국가 초기에는 다윗의 통치력으로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 냈고, 이후 다윗을 이은 솔로몬도 정치적 안정을 추구했지만, 솔로몬의 사치한 생활과 화려한 성전건설, 왕궁건설로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고, 많은 인력 동원이 되면서, 옛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솔로몬의 사후에는 다시 사울계의 열 개 지파를 모아 북이스라엘 왕조를 건립했으며, 남유다는 단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만 유지하는 국가로 분열되었다.

IV. 주변 제국들의 간섭과 이스라엘, 유다의 반제국 운동

작은 면적의 약소국가인 고대 이스라엘은 통일국가이었을 때나, 분단국가로 있었을 때나, 주변 제국의 강대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굴종과 침략을 겪으면서도 반제국사상을 간직하며 생존했음을 구약 전체에서 볼 수 있다. 통일운동은 내부 사회 모순의 개혁과 외부의 제국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 반제국사상과 운동이 구약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간략한 흐름을 보기로 하겠다.

출애굽기 첫 장면부터 “이집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노동으로 억압했다”(1:11)는 표현이 나오면서, 제국과 대립각을 세운다. 이어 모세의 등장과 성장,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도망하고, 시내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왕과 대결하고, 홍해바다를 건너 탈출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제국과 싸워 자유를 얻는 이 이야기를

‘해방 전승’(liberation tradition)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1-17절과 신명기 5:1-22절 두 곳에 있다. 멘덴홀은 십계명과 고대 근동지방의 국제조약 문헌의 형식과 구조를 비교하면서 그 유사성을 찾았다.⁹⁾ 십계명은 해방 전승의 정점에 있다. 이 해방 전승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제일 정점에 시내산의 신비로움과 함께 십계명이 선포되는데, 그 첫 메시지가 역사적 서언(historical prologue, 출애굽기 20:2과 신명기 5:6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느님이다.”)은 계약 당사자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관계를 밝히는 것인데, 종주국인 히타이트 제국(Hittite, 기원전 18-12세기)이 속국에 대해 시혜를 베푸는 국가 간 계약 앞에 붙이는 서두의 형식을 십계명의 서두에서도 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 역사적 서언은 마치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前文)과 같¹⁰⁾다. 앞으로 뒤에 나올 많은 계약법들의 이념적 좌표를 제시하는 구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하느님의 정체성(identity)을 보여주는 핵심 골격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신에 따라 살도록

9) George E. Mendenahll, “Ancient Oriental and Biblical Law,” *BA* 17 (1954), pp.25-46; “Covenant Forms in Israelite Tradition,” *BA* 17, (1954), pp.59-76; *Law and Covenant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Pittsburg: The Biblical Cooology, 1955); J. Arthur Thompson, *The Ancient Near Eastern Treaties and the Old Testament*(London: 1964).

10)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하라는 요구와 책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언은 모세와 함께했던 그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들과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적용되는 구절이다.¹¹⁾

십계명의 첫 문장은 하느님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6:2-3에 의하면, ‘주’(야웨, Yahweh)와 너희의 ‘하느님’(엘로힘, Elohim)이 등장한다. 바로 이 아웨가 신성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느님이 고, 그에게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십계명 위에 씌워진 우산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느님이다.”

11) Walter Harrelson, *The Ten Commandments and Human Rights*, p.52.

명령한 분이다. 십계명의 이 ‘해방 이념’은 십계명의 머리에 달랑 붙은 액세서리 문장으로, 그저 ‘역사적 서언’이라는 학술적 용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에 반제국 정신과 해방사상이 각각 맞물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였을 때도, 분단국가였을 때도, 이스라엘 내부사회는 권력은 부패하고 타락했다. 정치권력은 백성을 억압했고,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한 구조가 되었다. 예언자들은 제사장, 귀족과 권력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동시에, 외부사회에 대해서는 제국들과 주변국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와 심판 선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마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우리 속담을 생각하게 한다.

첫 번째, 반앗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나 주가 저 세차게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앗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이사야 8:7-8); “내(주)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 버리겠다.”(이사야 14:24-25); “주께서 맹렬한 진노와,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와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앗시리아는 주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이사야 30:30-31, 32); “주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스바냐 2:13)

8세기의 이사야와 스바냐 등 예언자들은¹²⁾ 당시 앗시리아 제국이

12) James D. Newsome, *The Hebrew Prophets*(Atlanta: John Knox Press, 1984).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 강도 높게 비판했다.¹³⁾ 기원전 733년과 724년경 앗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했으며, 결국 722년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예언자들은 앗시리아라는 거대 제국에 주눅 들지 않고,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두 번째 반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벨론은, 하느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화산 폭발)처럼 될 것이다.”(이사야 13:19. 참조. 9절, 11절); “내(주)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벨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이사야 14:22-23); “내가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소리를 그치게 하겠다.”(이사야 21:2); “파수꾼이 외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이사야 21:8-9); “보아라, 그들(바벨론)은 검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7:14)

제1이사야서(이사야 1-39장)에서 등장한 바벨론 제국은 722년경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신바벨론 제국에게 점령당하고 멸망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약소국가라서 직접 제국과 맞설 힘은 없으나, 신흥 세력이

13) Otto Kaiser, *Isaiah 13-39 OTL*(London: SCM Press LTD, 1973); John D. W. Watts, *Isaiah 1-33 Word Biblical Commentary*(Waco: Word Books, Publisher, 1985), p.118; John L. McKenzie, *Second Isaiah, The Anchor Bible*(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6); George A. F. Knight, *Isaiah 56-66*(Grand Rapids: W. M. B. Eerdmans Publ. Co., 1985).

등장하여 기존 체제를 쓰러뜨리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면서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넓은 역사적 안목을 평가하게 된다. 이사야서 13-14장, 21장은 바벨론 제국을 전체적으로 멸망시키겠다는 야웨의 의지를 본다.¹⁴⁾ 제2이사야(이사야 40-55장)도 비록 6세기 중엽 바벨론 포로기 상황에 있어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지만, 반제국 사상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바벨론 제국도 신흥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다.

세 번째는 반이집트 제국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이사야 19:2-4);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만군의 주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이사야 19:16); “딸 이집트의 백성이, 너희는 집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19-20).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22). ...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복讎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예레미야 46:19-24);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여, 성한 팔마저 부러뜨려 두 팔을 다 못 쓰게 하고서, 그가 칼을 잡을 수 없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 놓고, 여러 나라로 헤쳐 놓겠다.” (에스겔 30:22-23, 25)

14) Otto Kaiser, *Isaiah 13-39*, pp.191-216.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예언자들은 이집트 제국들을 강하게 심판하고 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시점인 제3이사야(이사야 56-65장)도 제국들에 대해 총괄적인 심판을 내린다. “주의 대적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이사야 64:1-2).

제국들의 크기에 비해 손톱만한 크기에 불과한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이 공세적으로 이들 국가들을 심판했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예언자들이 주변 제국들에 반대, 곧 ‘반제국’ 사상을 기본 골간으로 갖고 있으면서, 사회변혁과 함께, 통일운동을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V. 한반도 분단의 기원과 평화통일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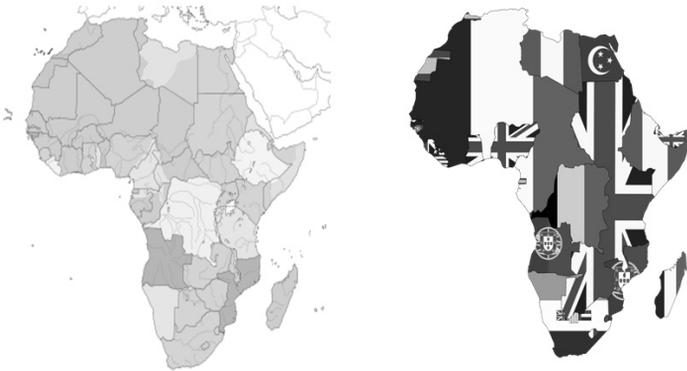
1. 38선의 기원: 19세기 유럽 국가들의 아프리카 대륙 줄긋고 땅 따먹기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수천 년 동안 독립하여 생존해왔다는 것은 크나큰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술한 침략과 전쟁들에도, 한국의 선조들은 제국들과 싸우며, 또 때로 타협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자주권을 잃고, 해방을 했어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었기에 우리나라는 또다시 제국들에 의해 분단의 굴레에 갇혔고, 그 후유증을 지금껏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분단으로 만든 북위 38선의 직선 줄은 어떻게 그어졌고,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희생자와 갈등,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북한 8천만 명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 경위를 찾아봄으로써, 분단을 이기고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하기로 하겠다.

15세기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인도 아시아에 나섰고, 그 후 4, 5백여 년간 식민지 약탈을 지속적으로 했다. 유럽인들은 이들 지역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오늘의 유럽 국가를 이루었다. 18세기 무렵 유럽은 아프리카 내륙에 관심을 가지며 금과 노예들을 약탈해갔다. 19세기에 아프리카 전체의 지도를 만들고,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했다.

1884년 베를린에서 유럽 12개국과 미국, 오스만 투르크 등 14개국의 고위정치가들이 모여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과 식민지화에 대한 원칙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프리카에서 백인끼리는 총칼로 싸우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주요 지역에 직선으로 경계선을 그어 유럽 국가로 영토화하기로 했다. 물론



아프리카 대륙에 그어진 직선 국경들(구글에서 발췌)

아프리카인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베를린 회의는 아프리카를 갈라먹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때의 베를린 회의로 지금까지 아프리카는 그들 전통의 부족, 인종, 언어, 문화 등의 문화가 있었으나, 완전히 무시되고 일방적인 직선의 국경선이 그어져 모든 전통적인 영역을 갈라놓고, 흡어놓았다. 심지어 직선 국경으로 같은 종족도 다른 나라로 갈렸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했지만, 유럽 국가들에 의해 착취당해 지금까지 기아의 최빈국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도 유럽과 미국 국가들에 의해 38선으로 직선이 그어지고, 아프리카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 38선과 한반도의 분할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은 의병과 독립군에 참여하며 국내와 중국에서 엄청나게 저항하며 투쟁했지만, 일제의 패망은 미국의 원폭투하로 끝났고, 전후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갔다. 미국 육군부는 1945년 7월에 처음으로 연합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미국이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경상남북도를, 소련이 함경남북도, 영국이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를, 중화민국이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를 점령하는 계획이었다. 마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아프리카를 분할해서 땅따먹기를 한 것과 동일하다. 한 달 뒤 8월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일본 주요 열도와 한국에 대한 연합국 관리 및 점령군 계획’에서 일본 열도와 한반도에 대한 4국 분할점령 계획을 작성했다.¹⁵⁾ 미국,

15) 38선을 확정하는 것은 미국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기관원의 협의체인 3부 조정위원회

소련, 영국, 중화민국 4개국은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킨 후 서울, 청진, 원산, 평양, 군산, 제주 등 주요 전략지점에 연합군을 주둔시키고, 이후 한국이 독립할 때까지 한반도를 분할 관리한다는 계획을 입안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공식 패배를 인정하기 전에 이미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심지어 독립 운동가들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다시 열강 제국들에 의해 분할된 것이다. 그리고 9월 22일 작성된 수정안에서는 38도선 분할이 확실시되어 영국과 중화민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소련 양국의 38도선을 직선 경계로 분할 점령안으로 바뀌었다. 그 후 38선(1945.9.2.~1950.6.25)과 현재의 군사분계선(1953.7.27.~)은 다르지만, 한반도 분단에 있어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크고 분단의 직접적 원인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군사분계선을 ‘38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했고, 그 결과 분단이 시작됐다. 1948년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SWNCC)였다. 소련군이 만주 전략공세작전을 개시한 후, 3부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차관보 제임스 던(J. Dunn)은 1945년 8월 11일에 육군부 작전국에 소련군의 남진에 대응하여 미국이 서울과 인천을 점령하도록 하는 군사분계선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미국 육군부 작전국의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이후 주한미군 사령관 역임) 대령과 미 육군장관 보좌관이었던 딘 러스크(Dean Rusk, 이후 케네디와 존슨 정부에서 국무장관 역임) 중령은 작전국에 걸려 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의 벽걸이 지도에 38선을 그어본 후 38선 분할 점령안을 미국 합참과 3부 조정위원회에 보고했고, 이 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일반 명령 제1호’로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38선 분할 점령안을 미국이 제안하자 소련은 별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고, 1945년 8월 23일 개성 시까지 내려갔던 소련군은 9월 초에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했다.



한반도에 그어진 분단의 직선 국경 38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국가’가 설립되면서 38선은 ‘두 체제’의 국경선이 되고 만다. 세 번째는 한국전쟁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38선을 넘어 전면전을 일으킨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1950년 9월 초부터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는 경우 25만 명을 파병할 수 있다는 경고성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최고지도부의 맥아더는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10월 9일 전면적인 북진을 시작했다. 그 결과가 바로 중국의 참전이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는 미국, 소련, 중국과 UN군의 전쟁의 각축장이 되었고, 2차 세계 대전 때보다 많은 총알과 폭격이 투하되었다고 하니, 금수강산의 한반도는 민간인 100만 명, 양측 군인 100만 명이 죽는 엄청난 끔찍한 전쟁터로 변했다.

3. 독도 영유권 지키기도 통일운동과 연계

한국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맺어진 일본과 48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이

조약의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소련은 조약에 일본의 군대 창설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 사회주의 중국이 일본 침략의 주요 피해자임에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 일본을 미군 기지로 삼았다는 점, 미국에 일본의 여러 섬이 할양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조약에 대해 반대했다.

미국은 초기에는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1894년 1월 1일을 기준 일로 그 이후 일본이 영토 야욕으로 침탈한 모든 땅을 원주인에 반환한다.”는 원칙을 잘 지켰다. 미국의 평화조약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 5차례에 걸쳐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넣었다. 1947년 3월 20일에 작성된 미국 측의 제1차 초안에는 “일본은 한국(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을 포함해 한국 연안의 모든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權源)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¹⁶⁾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을 위한 회의의 주요 의제는 전후 일본의 영토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일본의 군사력 범위, 일본이 침략한 나라에 대한 배상 등이었다. 전쟁중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일본의 집요한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회의결과 조약의 제2장 ‘영토’ 부분의 제2조 조항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¹⁷⁾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내용 속에 한국의 영토 관련 규정이 있는데, 독도는 빠졌다.

16) 미국의 제2차 초안(1947년 8월 5일), 제3차 초안(1948년 1월 2일), 제4차 초안(1949년 10월 13일), 제5차 초안(1949년 11월 2일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에 명문으로 기록되어 포함돼 있었다.

17)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미국은 일제에 의해 강점당한 한반도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의 귀속 영토로 보았던 것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했고, 독도를 강제 점유한 후, 되돌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운동은 반드시 독도주권지키기와 함께 연동되어 가야 할 중요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통일운동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동시적 운동

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현재 한반도의 통일 논의는 남북한 정상회담과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것 같았으나, 비핵화를 일괄적으로 볼 것이냐, 단계적으로 볼 것이냐의 첨예한 대립으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다. 핵무기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존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보고 있고, 남한 및 미국을 비롯한 UN동맹국들은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교류가 진전되는 것에 우려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

은 UN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선언했다.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에 이끌려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의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핵심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이 진행되려면,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종전선언을 합의하자는 것이다.¹⁸⁾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공개 지지했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미·중이 종전을 선언하면 한국전쟁 후 유지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논의에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북한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 최종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체제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됨은 물론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북미수교 등 한반도 주변국의 관계 정상화로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나아가 평화체제는 한반도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주변국이 보장하는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비로소 남북한이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국제법적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18) 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쟁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VI. 맺는 글

이상에서 제국들에 둘러싸여 험난한 역사를 견디어 온 고대 이스라엘과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이 매우 유사했음을 간략히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첫째, 고대 이스라엘의 통일에 관한 논의는 보통 에스겔의 두 막대기 비유를 들어 하나로 합치는 비유를 근거로 하는 경향이 많으나, 이것은 표층적인 접근이라 본다. 이스라엘의 분열과 통일문제는 복잡한 심층구조를 갖고 있다. 그 기원은 국가체제 이전의 열두 부족(지파) 시대에 대부분을 장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사울과 한 지파의 수장이었던 다윗의 갈등으로 소급했다. 여기서 역사적 가정을 했으며, 사울이 통일을 했더라면, 내부의 권력들 다툼은 있었겠으나 분단국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보았다. 이것의 의도는 한 지파의 다윗이 열한 지파를 통일시킴으로써 솔로몬 이후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어 추적해 보았다.

둘째, 구약의 내용들에 반제국 사상이 고르게 퍼져 있음은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제국들의 간섭과 침략과 전쟁을 견디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몸부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내부 사회의 정의평화 운동과 바깥 세계의 제국들에 대한 경고의 운동을 동시에 펼쳐나간 용기를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한반도의 현대사는 분단의 상징이 된 38선의 줄긋기의 기원이 식민지 시대에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무차별적인 약탈과 노예로 인권문제를 자행했던 그런 짓을 일제 강점기를 끝내는 시점에 미국이

똑같이 했음을 보았다. 한 줄의 직선이 민족을 가르고, 이념을 가르고,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전쟁 피해가 한반도에서 생겼고, 현재까지 분단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제가 우리를 배제시키고, 독도를 국제법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점유하려는 침략적 야욕에 단호히 맞서며, 항상 통일운동과 연계하여 펼쳐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끝으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로 가는 기로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은 종전선언에 서명을 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협정체결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목적을 지향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양측의 군비축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진. “신명기 사가의 역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8 (2005).
- 김은규. “신명기 사가의 연구 동향.” 「신학사상」 10 (1997).
- 김은규. 『구약 속의 종교권력』. 서울: 동연. 2013.
- 박신배. “신명기 역사서의 제의개혁과 신학.” 「구약논단」 19 (2005).
- 오택현. “신명기 역사에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 종교.” 「구약논단」 12 (2002/5).
- Anthony, R. Ceresco.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Maryknoll: Orbis Books. 2001.
- David M. Gunn. *The Fate of King Saul*. Sheffield: JSOT Press. 1980.
- E. W. Nicholson. 『신명기와 전승』. 장영일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George A. F. Knight. *Isaiah 56-66*. Grand Rapids: W. M. B. Eerdmans Publ. Co. 1985.
- George E. Mendenahll. “Ancient Oriental and Biblical Law.” *BA* 17 (1954).
- . “Covenant Forms in Israelite Tradition,” *BA* 17 (1954).
- . *Law and Covenant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Pittsburg: The Biblical Cooquium. 1955.
- J. Arthur Thompson. *The Ancient Near Eastern Treaties and the Old Testament*. London: 1964.
- James D. Newsome. *The Hebrew Prophets*. Atlanta: John Knox Press. 1984.
- John D. W. Watts. *Isaiah 1-33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5.
- John L. McKenzie. *Second Isaiah.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6.
- Otto Kaiser. *Isaiah 13-39 OTL*. London: SCM Press LTD. 1973.
- Robert Polzin. *David and the Deuteronomist*.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 Tomoo Ishida. *The Royal Dynasties in Ancient Israel*.
- Walter Harrelson. *The Ten Commandments and Human Rights*.